

경기대진TP 사업 ‘오락가락’

종합지원센터 신축 軍협의 추진중 제동걸려

포천시와 경기도, 대진대가 야심 차게 추진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경기대진TP) 조성사업이 사업초기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기대진TP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 신축이 군부대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회회의장과 행정지원실, 창업보육실 등이 입주할 종합지원센터는 포천시 자작동 588-4번지 일원에 포천시와 경기도, 대진재단 등이 172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1,909㎡(3천602평), 건축면적 2,427㎡(734평) 지상6층 지하1층 건물을 2007년12월 완공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초 자작동 588-4번지 일대 5천7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11월24일 경기도지사와 산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올 5월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건축을 위한 군사동의를 요구하자 관련 군부대는 작전상 불가피성과 인근 지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처리해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대진대 총장이 관련 부대장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현재로서는 軍동의가 어렵다고 판단, 경기대진 TP측은 5월19일 군부대에 접수한 협의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경기대진TP 안준수 원장은 “공정부지를 매입할 당시 군사동의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설계변경을 통한 재협의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군부대 내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군사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군사시대 발상”이라면서 “관련 부대는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원장은 “경기대진TP에서 군부대까지 직선거리로 800여m로 軍작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군부대 인근까지 확대개발을 막기 위함이고, 민에 대한 軍의 경시중조가 기인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지난 5월초 경기대진TP가 군사동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종합지원센터 신축이 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3천602평, 건축면적 734평에 지상6층, 지하1층 규모로 국회회의장과 행정지원실, 창업보육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를 요구해 왔지만 (6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높이가 33m가 되어) 軍사령부 관측이 가능하고 軍작전상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不동의했다”면서 “같은 조건으로 재

협의의 요구할 경우 또다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진테크노파크를 꼭 이곳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냐, 다른 부지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꼭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6m 높이의 차단벽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 재협의의 요구하면 심사숙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군내·가산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빠르면 2010년 토지보상 등 본격 사업착수

포천시 군내·가산면 일대에 판교신도시(282만평)보다 큰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포천시가 포천신도시개발 등을 포함해 마련,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예정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연구원의 개발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올 연말께 정부에 신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하고 2007년 6월 지구지정, 2009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후 2010년부터 토지보상 등 신도시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이곳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6000가구를 지어 주거, 상업, 행정, 유통 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는 15만명이며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이번에 포천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시 전역 인구 대상으로 목표연도 2020년에 인구 35만명, 주택 보급률 105%, 상수도 보급률 97.9%, 하수도보급률 95%까지 끌어 올린다는 중장기 개발 계획이다.

신도시 예정지역은 43번 국도, 87번 및 56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주변을 지나 교통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정부의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도로 및 철도정비 계획을 밝힌 곳이다.

또 주변에 대학이 3곳이나 위치해 있고 공장도 많이 자족성 확보가 가능한 데다 녹지로 둘러싸여 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장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은 예정된 절차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5년께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 전체 인구가 현재 16만1000명에서 2020년까지 35만명으로 늘어나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① ... 경쟁력 상실한 가구업계

올연말 40% 도산 우려

포천에서 가구관련 업체는 2006년 현재 400개 정도다. 3~4년전만 하더라도 550여개 업체가 영업을 했다는 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현재가동중인 제조업체 또한 조만간 40%정도가 도산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400여개 가구제조업체를 살펴보면 80%정도가 타인공장을 임대해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고 20%정도만이 자신의 공장을 소유한 중소기업업체들이다.

7,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호황을 누렸던 가구업계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말은 오래 전 일이다. 이제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본지는 포천가구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제조 기계업체와 가구용 합판제조업체, 가구제조업체 등을 현장취재 했다. 업체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와 대표들은 익명으로 사용한다.

▶가구제조 기계업체

가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생산하는 A업체는 3~4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80%가 줄었다. 동종 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도산한 상태다. 그나마 이 업체는 자기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왔지만 줄어드는 물량과 인건비, 세금 등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자금회수가 안 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이 업체 대표의 판단이다. 현재 이 업체는 소사장 제도를 도입했다. 여전히 1명만 고용하면서 형식상 회사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라인마다 지분을 달리는 소장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일종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의 말에 의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가구제조 업체들은 가구제조 기계가 거의 필요 없다는 말이다.

▶가구용 합판제조업체

가구관련 업종15개 업체들이 모여있는 방축리가구단지에서 가구용 합판제조와 유통을 하고 있는 C업체, 이 업체는 주문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작업시간 단축과 직원을 줄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호황 옛말 ... 임대료 공과금 못내 공장문 못 닫고 대출 이자만 늘어

가구관련 합판제조업체는 포천시에 20개 업체가 있다. 주로 주문방식에 의한 생산을 하고 있는 입가공이 대부분이다. 30년을 이 업종에 종사해 온 C업체 대표는 “평소 같으면 가구관련 사업은 봄과 가을이 호황기인데 주문량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면서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할 일이 없어 큰 일이다”면서 한숨을 내 쉰다.

이어 그는 “한 달에 5만원하는 수도세와 전기세도 못내는 업체가 10여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혹시나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보증금조차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3~4년 전에 비해 매출액은 현형없이 감소했다. 배운 게 이것뿐인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 타계책이 없다. 다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답장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일거리가 없어 직원들이 놓고있는 것을 보면 열통이 난다”고 하소연을 한다.

또한 “일주일 중에 8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2~3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오전 작업에 그치고 있다”면서 “30여명 되었던 직원을 8명까지 줄였는데 당일 소량 주문을 감안하면 더 이상 감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가구용 합판제조업체 역시 밀려드는 값싼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반제품이나 완제품으로 인해 국내 수요가 극감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상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판매하기 때문에 가구업계 유통질서 또한 무너지고 있어 중소기업업체들은 생존이 어렵다.

▶가구조립 및 제조업체

37년째 가구제조업과 유통업에 종사해 온 K업체 대표는 “아직은 가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정리한다”면서 “앞으로 공장이 들

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공장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처지”라고 말한다.

K업체는 3~4년 전에 비해 직원을 50% 감축했다. 물론 매출액 또한 50%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마진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 올 연말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K업체 대표는 “값싼 제품 수입과 국내 경기하락으로 인한 과잉공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올 연말이 되면 400여개 업체 가운데 40%이상이 도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방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소연을 한다.

K업체 대표는 “업체간 과열 출혈경쟁으로 사실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면서 “빛은 들어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금 이자도 못내 차압당하고 경매로 넘어간 공장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공장을 살 사람만 있으면 팔고 빛이라고 갚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진다. 경조사 비용조차도 큰 부담이 된다”면서 한숨만 내쉰다.

K업체 대표는 “가구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준수 창업된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리되고 유통질서, 강화된 정부의 환경관련법이 선행되어야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생을 찾을 수 없고, 머지않아 가구제조업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가구소비자 가격은 크게 하락해 86년과 동일하다는 게 K업체 대표의 말이다. 가구의 대량생산과 분업화는 결국 가구업계가 자신의 발등을 찢는 결과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K업체 대표는 “그만 둘 수도 없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구제조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조만간 국내 가구제조업이 없어진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15년 전통... 가구업계의 든든한 버팀목

사무용상판 전문제조업체

송이산업



대표 백봉기

